

RESEARCH | PEER REVIEWED

미국에서 교육 및 훈련: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을 위한 안내서

Xinsu Chen ^{1*}, Hae Sun Kim ¹, Abbey Dvorak ¹¹ The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USA* xinsu0506@gmail.com

Received 22 June 2023; Accepted 3 October 2024; Published 1 November 2024

Editor: Ming Yuan Low

Reviewers: Lillian Eyre, Meng-Shan Lee

초록

음악치료 이해관계자들은 국제 학생들이 미국에서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해 겪는 과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국제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인 음악치료사가 되기까지의 준비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고, (b) 미국에서 공부하는 국제 학생들의 공통적인 염려와 어려움을 서술하며, (c) 연구 문헌으로부터 얻은 최상의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제 학생들이 학생 신분에서 전문 치료사가 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자신들의 모국에서부터 미국 공인 음악치료사가 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정보, 재정, 학생 비자와 관련된 출국 전의 절차들; 둘째, 임상 실습, 학위 과정, 전임 학생(full-time) 신분 유지 등과 관련된 교과 과정 중간에 필요한 요구 사항들; 셋째, 교육과정 실습(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음악치료사 자격시험, 선택적 실습 교육(Optional Practical Program, OPT), 그리고 취업 관련 비자 신청 등의 필수 교과 과정 이후의 절차를 포함한다. 미국 내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문화적 충격, 인종 차별, 음악치료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재정 문제, 심리적 어려움, 음악적 기술 향상 및 레퍼토리(repertoire), 즉 연주 곡목 확장과 같은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문헌에서 확인된 모범 사례들은 국제 학생들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학 캠퍼스의 지원과 자원을 활용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문화적 겸손(cultural humility)을 증진시키기를 권장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음악치료 교육과 훈련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학생들을 위한 추가 제언들을 다루며,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권장 사항을 공유한다.

키워드: 음악치료; 국제 학생; 교육과 훈련

전 세계의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기를 선택하고 있다. 국제 학생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여행하는 비이민 비자 신분의 외국인으로 정의된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4). 이 학생들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하 ICE) 소속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이하 SEVP)의 인증을 받은 교육

기관에서 특정 유형의 비자와 교육 과정을 받는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3). 미국은 매년 백만 명 이상의 국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고등 교육을 받는 학생의 약 4.6%를 차지한다 (Parker, 2023). 국제 학생들은 미국에 447 억 달러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시아 국가에서 오는 학생들이다. 현재 미국에서 음악 치료를 공부하고 있는 국제 학생의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Andrade 와 Hartshorn (2019)에 따르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국제 학생들은 고등교육 성취에 방해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여러 문화적, 언어적, 경제적, 정보적, 제도적인 어려움들을 포함한다 (Wilczewski & Alon, 2023). 또한 졸업 후 미국에 체류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취업이나 영주권 신청 등과 관련해 불안정한 신분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게다가 음악치료를 공부하는 국제 학생들은 음악치료 학위 공부나 직장에서의 추가적인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음악치료 학생들과 교육자들, 임상 감독자들(전문적 발달을 돕고 사례를 감독하는 전문가), 관리자, 개인 사업자들은 미국에서 음악치료가 되기 위한 국제 학생들의 여정을 더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의 필요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국제 학생들이 본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구체화하고, (b) 미국에서 음악치료를 공부하는 국제 학생들의 공통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개괄하며, (c) 연구 문헌에서 얻은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여 미국 내 국제 학생들이 학습자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이 논문의 세 저자는 다음과 같다: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주립대학에서 음악치료 석사학위를 취득한 중국인 학생, 미국에서 음악치료 학부와 대학원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미국 대학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교수,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실습하며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미국인 교수를 포함한다. 이들은 미국에서 음악치료 국제 학생들의 교육과 훈련 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배경, 경험, 관점, 책임을 가지고 있다.

출국 전부터 음악치료 전문 실무까지의 과정에 대한 개요

국제 학생들이 자국에서 미국으로 오며 음악치료 전문 실무에 이르는 과정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다. 아래의 내용은 본 연구 논문 출판 시점에서 확인된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겪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이 과정에 대한 요약은 부록을 참조). 학생들이 겪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국제 학생들은 먼저 미국 정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지침을 명확히 따르기를 권고한다. 국제 학생들의 출국 전 과정에는 정보, 재정, 학생 비자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된다. 미국에서 음악치료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는 음악치료 실습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커리큘럼 이수, 전임 타임 학생 신분 유지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필수 과목들을 이수하고 인턴십(치료실습)을 마친 후에는 음악치료사 자격시험을 치르는 것과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선택적 실습 교육(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하 OPT)에 참여하거나 취업 관련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출국 전 과정

Khanal 과 Gaulee (2019)는 국제 학생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학생들이 출국 전에 겪는 어려움을 정보, 재정, 비자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문제로 분류하였다.

정보와 재정

미국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학교와 프로그램들을 알아보는 것이다. 학생들은 USAGov (<https://www.usa.gov/study-in-US>)와 미국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 <https://educationusa.state.gov/your-5-steps-us-study>)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미국 내 교육 옵션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국제 학생들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학교의 위치, 종류, 프로그램, 전공에 따라 관심 있는 학교들을 비교할 수 있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다른 국제 학생들의 경험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EducationUSA, n.d.; USAGov, 2024). 또한 음악치료

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미국 음악치료 협회(AMTA) 웹사이트(www.musictherapy.org)에서 미국 내에서 승인된 학교 목록을 검토하고 AMTA와 SEVP 인증을 받은 학교들을 찾아야 한다. 학생들은 지원할 학교 목록을 선정한 후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작성하게 된다.

미국의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두 번째 단계는 입학 지원서와 필요 서류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은 국제 학생 입학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2023).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에는 (a) 졸업장, 성적 증명서, 자격증 및 최종 국가 시험 점수 등 학력 증명서, (b) 학업 성취를 확인하기 위한 표준화된 시험 점수(예: 대입 지원자들에게는 American College Testing [ACT] 또는 Scholastic Assessment Test [SAT] 점수를, 대학원 지원자들을 Graduate Record Examinations [GRE] 시험 점수를 요구), (c) 영어 실력 검증을 위한 시험 점수(예: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OEFL])가 포함된다. 학생이 면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영어 시험 점수가 필요하다. 또한 추천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또는 CV, 에세이 등과 같은 다른 필요 서류들이 있다. 학교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음악치료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오디션을 보거나 음악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레코딩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국 대학마다 요구하는 재정 증명 형태가 다를 수도 있지만 국제 학생들은 최소 1 년의 학비, 주거비, 도서, 장비,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입학이 승인되면 국제 학생들은 이 재정 근거 서류를 지정된 유학생 담당자(DSO)에게 제출해야 한다 (Durrani, 2020).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a) I-20 신청서, (b)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사본, (c) 처음 유학 체류 기간 1 년 동안의 학비, 생활비, 학생 본인과 부양 가족의 건강 보험료 등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재정 관련 서류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재정 증빙 서류는 영어로 공식 번역된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최근 6 개월 거래 내역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는 경우 재정 보증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와 재정 보증서 제출), 장학금 증명서, 조교 제안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3). 만약 학생이 배우자나/또는 21 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데려올 계획일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미국 학교에 재학 중이며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이하 SEVIS; SEVP 가 관리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국제 학생 및 교환 방문자의 정보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전자 시스템) 기록을 새 학교로 옮기는 SEVIS 전송 절차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학생 담당자는 I-20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입학 승인 시 입학 허가서를 발급한다. 이 입학 허가서는 학생이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합법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이후 학생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이다 (Durrani, 2020;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3). 입학 허가서에는 학생의 정보, 학교 정보, 전공, 학위 취득 예정일과 같은 학업 계획, 재정 정보, 고유 SEVIS 번호 등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I-20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studyinthestates.dhs.gov/students/prepare/students-and-the-form-i-20>. 입학 허가서는 학생들의 유학 생활 동안 필요한 중요한 서류이며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한다. 학생들은 신분과 관련해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 인적 사항, 프로그램 날짜, 전공 변경, 취업 허가 등) 새로운 I-20 를 유학생 담당자에게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 이외의 국가로 여행 할 때 입학 허가서에 반드시 유학생 담당자의 서명을 미리 받아야 하며 이는 미국에 재입국할 때 필요하다.

일부 학생들은 재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부 국제 학생들은 특정 유형의 장학금, 보조금 및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자금 지원 또한 제한적이다. 하지만 국제 학생들을 위한 다른 재정 지원 옵션들이 있을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자국민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 기관과 기업에서 미국에서 유학 및 연구를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 및 보조금,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환 프로그램에 지원해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S. Government Services and Information, 2022). 유학생 입학팀을 통해 장학금을 포함한 학교 자체 자금 지원 옵션이나 추가적인 비용 (예: 음대 대학의 스튜디오 비용 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SEVP 승인을 받은 학교가 입학허가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승인하면, 학교 측이 학생의 정보를 SEVIS 시스템에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SEVIS 번호를 생성한다. 학생 비자 신청자(F 및 M 비자)의 경우, 학교에서 I-20 양식을 발급하고 이 SEVIS 번호가 I-20 입학허가서에 인쇄된다. I-20 를 발급받은 학생들은 FMJfee.com 에서 SEVIS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은 미국으로 입국할 때와 비자 신청 시에 꼭 필요한 식별 번호이므로 비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3). I-901 SEVIS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EVIS 수수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mjfee.com/i901fee/index.html>.

비자

앞서 말한 것처럼 비자 신청 절차는 국제 학생들이 미국 내 SEVP 승인 학교에 입학이 허용된 이후의 단계이다. 미국 정부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들을 위해 F-1, M-1, J-1 과 같은 3 가지 비자 종류를 제공하고 있다. F-1 비자는 미국에서 어학연수 또는 학위 취득 등 학업을 목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학생 비자이며, M-1 비자는 미국에 있는 기관에서 어학연수를 제외한 직업 또는 기타 비학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이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3). 교류 방문 비자인 J-1 비자는 미국에서 방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자국에서 재정을 지원받는 학생들에게 허가되는 비자이다. 미국 내에서 대학이나 고등학교, 사립 초등학교, 신학교, 음악원, 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교육 기관에 다니는 경우 일반적으로 F-1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U.S. Department of State, 2023). 미국 내 대부분의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F-2 비자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한 비자) 이 학생 비자는 교육 기관에 입학하여 음악치료 학과의 학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승인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따라서 이후 본문에서 설명되는 비자와 비자 발급에 관한 내용은 F-1 비자 소지자와 F-1 비자 발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비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U.S. Government Services and Information, 2022). F-1 비자와 같은 학생 비자는 I-20 상에 기재된 학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365 일 전에 발급될 수 있다.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기 전에 학생들은 먼저 온라인으로 DS-160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된 DS-160 확인 페이지를 비자 인터뷰 시 제출해야 한다. F-1 비자 인터뷰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효한 여권, 신청자의 DS-160 확인 페이지, 비자 인터뷰 예약 확인서, 비자 사진,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서, 입학 허가서 (I-20)를 구비 서류로 지참해야 한다 (U.S. Department of State, 2023). 또한 성적표, 졸업장, 학위, 자격증, 표준화된 시험 성적 등 학업 준비와 관련된 서류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의 구체적인 계획과 미국을 떠날 의사를 입증하는 증거, 1 년치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재정 증명 서류를 기타 추가 서류로 제출해야 할 수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2023). 학생들은 모든 구비 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예약 당일에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

비자가 발급되면 국제 학생들은 미국 입국을 준비하고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며 입국을 위한 필요한 자료들과 서류들을 준비하게 된다 (U.S. Department of State, 2023). 출국을 준비할 때 학생들은 건강 보험, 미국 내 주거 옵션, 현지 교통 및 날씨 등과 같은 내용을 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F-1 학생은 I-20 학위 프로그램 시작 날짜 기준으로 30 일 전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3).

교과 중간 과정

학생이 미국에 도착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이하, USCBP)은 학생이 미국 내 처음 입국하는 공항에서 I-94 출입국 기록증서를 발급한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3). 이 I-94 서류는 국제 학생의 체류 신분, 합법적인 체류 기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정부 기록이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3). 이 서류는 대부분의 정부 기관 또는 학술 기관과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합법적인 방문자 신분을

증명한다.

미국에 도착하면 모든 F-1 비자를 가진 국제 학생들은 입국 후 최대한 빨리 학교에 도착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체크인을 제때 완료하지 못하면 학생 비자 신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모든 신입 국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국제 학생 오리엔테이션에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학업과 생활을 위한 비자 규정과 절차에 대한 안내, 취업 규정과 기회에 대한 정보 안내, 캠퍼스 및 지역 사회 투어, 문화 체험 등이 포함된다. 학생의 영어 실력과 학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로 영어 시험을 치거나 영어 관련 수업이나 워크숍을 이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음악치료 학생들은 음악치료 과정을 시작하기 전 음악 능력에 관련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음악치료 교육 과정이 시작되면 국제 학생들은 미국 내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발전시키게 된다. 미국 음악치료협회 (2021)에 따르면 음악치료는 “공인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치료적인 관계 안에서 개별화된 치료 목적을 달성하도록 임상과 증거에 기반한 음악치료 중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음악치료 서비스는 개별 또는 그룹 세션으로 내담자의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 사회적, 의사소통적, 발달적, 학업적, 웰빙, 또는 영적인 필요에 기반을 두고 제공될 수 있다 (음악치료공인위원회; Certification Board for Music Therapists [CBMT], 2020a). 음악치료사들은 의료, 교육, 재활, 정신 건강, 그리고 개인 사설 센터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미취학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임상 내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Knight et al., 2018). 또한 미국의 음악 치료사들은 행동적, 발달적, 인문학적, 신경학적, 정신역학적, 즉흥적, 문화 중심적, 지역 사회 중심적, 건강과 웰빙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CBMT, 2020a).

음악 치료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은 미국 음악치료협회(AMTA)가 승인한 학위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CBMT 에서 제공하는 국가 자격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음악치료 수업, 임상 실습, 인턴십 등 학부 또는 동등한 수준의 모든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음악 이론, 음악치료, 행동 과학 등의 과목을 포함한 교과 과정을 이수하여 음악치료 학사 학위나, 기존에 학사 학위가 있는 학생들은 학사 후 동등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또한 학사 학위나 동등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음악 치료사의 감독 하에 1,200 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AMTA 에서 요구하는 입문 수준의 전문적 역량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F-1 비자를 가진 국제 학생들은 미국에서 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합법적인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문화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난관과 더불어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국제 학생들은 미국 이민국의 정책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스탠포드 대학 베첼 국제 센터(SUBIC, n.d.)는 국제 학생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여섯 가지 중요 사항들을 제시했다. 첫째, 학생들은 최소한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학사 연도(academic year, 예를 들어 미국의 가을/봄 학기)에 전임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학교의 필수 학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임 학생 신분은 일반적으로 학부생의 경우 학기당 최소 12학점을 수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원생들은 조교직에 따라서 학기당 최소 6 학점 수강도 가능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소 9 학점 수강을 해야 전임 학생 신분으로 간주된다. 모든 F-1 학생들은 매 학기 풀타임으로 등록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 신분이 상실된다. 여름이나 겨울 방학 동안에는 풀타임 등록이 선택 사항이다. 국제 학생들은 건강상의 어려움, 학위 공부를 끝낸 마지막 학기에 졸업 논문 작성 등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최소 학점보다 적은 학점 수강을 위해 학점 축소(reduced course load)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먼저 지도 교수와 유학생 담당자와 상담하여 가능한 옵션들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 국제 학생들은 교내나 교외 취업 관련 모든 규정과 제한을 따르도록 권장된다 (SUBIC, n.d.). 유학생 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교외 취업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미국 이민국의 취업 규정에 따르면, 교외 취업은 미국에 처음 F-1 비자로 입국한 후 반드시 1 년간 풀타임 학업을 마친 뒤에만 유학생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내에서 취업한 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 시간 근무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는 최대 40 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교내 취업의 경우도 시작 전 유학생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넷째, 국제 학생들은 적절한 수준의 학업 진행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필요한 성적을 유지하며 학업을 이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음악치료 전공 학생들은 학과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최소한의 성적을 유지하고, 음악치료협회(AMTA)에서 규정한 음악, 임상, 음악 치료 능력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 학생들은 항상 입학허가서와 같은 비이민/이민 관련 서류를 유효하게 소지하고 유지해야 한다 (SUBIC, n.d.). 학생들은 자신의 I-20 에 기재된 학업 종료일을 인지하고 필요 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졸업 후에도 비이민/이민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F-1 비자를 소지하는 동안 발급된 각 문서들 잘 보관해야 한다. 여섯째, 학생들은 개인 정보, 프로그램 또는 재정 등과 관련해 학생 신분에서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예: 주소, 학위 레벨, 전공, 졸업일, 이름, 신분 상태 변경 등) 변경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학교나 유학생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SUBIC, n.d.). 학생들은 이러한 여섯 가지 중요한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미국 내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다.

인턴십과 교육과정 실습 (CPT)

음악치료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이수하는 학업 과정 이외에도 최소 900 시간의 인턴십을 필요로 한다 (AMTA, 2021). 인턴십에 지원하고 합격한 F-1 학생 비자를 소지한 국제 학생들은 ‘교육과정 실습’ (CPT)을 신청할 수 있다. CPT 는 F-1 비자 소지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경우, 혹은 학교에서 인턴십을 학위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2).

교육과정 실습(CPT)는 모든 인턴십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 학생들을 위한 대부분의 인턴십에는 필요로 한다. CPT 가 허가되면 학생들은 분기나 학기당 시간제(주당 20 시간 이하) 또는 풀타임(주당 20 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거나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CPT 로 12 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 졸업 후 ‘선택적 실습 교육’(OPT) 신청 자격을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음악치료 인턴십은 약 900-1,040 시간으로 6 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 후 OPT 신청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유학생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CPT 는 F-1 비자로 공부하는 국제 학생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하는 학기와 그 직전 학기에는 풀타임으로 재학했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전공으로 재학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학원생의 경우 CPT 에 즉시 참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제한받지 않는다. OPT 와 다르게 CPT 는 학생들이 재학 중에 신청할 수 있지만, 졸업 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CPT 는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가 아니며 고용주가 비자 스폰서로 지원할 필요가 없지만, 국제 학생들은 CPT 승인을 받기 전에 전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인턴십, 취업과 관련해 고용주에게서 근로 계약서(offer letter)를 받아야 한다. CPT 는 모든 인턴십에 필수가 아닌 일부 인턴십에서만 필요하므로 학생들은 학교 내 유학생 담당자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학생들은 인턴십이나 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유학생 담당자로부터 CPT 승인을 받아야 하며, I-20 의 두 번째 장에 CPT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그리고 I-20 에 표기된 CPT 승인 시작일부터 CPT 를 통한 인턴십이나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인턴십 시작 1-4 주 전에 CPT 신청을 할 수 있다. CPT 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고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은 CPT 에 관련된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및 제한 사항 등에 관련해 유학생 담당자와 상의하기를 권장한다.

필수 교과 과정 이수 후 절차

음악치료 필수 과목들을 마친 국제 학생들은 일반적인 ‘필수 교과 과정 이수 후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이 과정에는 공인 음악치료사 자격을 얻기 위해 음악치료사 자격 시험을 치르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졸업 후 미국에 머물면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선택적 실습 교육 (OPT)이나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필수 교과 과정 이수 후 절차’는 각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공인 음악치료사

자격을 얻거나 음악치료사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당한다.

음악치료사 자격 시험

음악치료 학사 학위나 동등 학위의 요구 사항과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은 미국 공인 음악치료사 (MT-BC) 자격을 얻기 위한 음악치료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 자격증은 미국에서 음악 치료사로서 일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증이다 (AMTA, 2021). 공인 치료사 자격 시험은 미국에서 음악치료사로 실무를 위해 필요한 ‘초급 수준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작용한다 (Hsiao et al., 2020). 2024 년 기준 자격시험은 시험장에서 컴퓨터를 통해 실시되고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으며 모든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 응시자들은 3 시간 동안 150 문항을 답해야 하며, 이 질문들 중 130 개는 채점되고 20 개는 채점되지 않은 사전 시험 문제이다 (CBMT, 2020b).

국제 학생들은 CBMT 시험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볼 때 언어 장벽과 시간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제 학생들은 낮은 단어나 관용적인 표현들, 특정 용어나 어휘를 접할 수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학생들의 이해도와 정확한 답을 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영어 능력은 국제 학생들이 공인 시험에서 첫 시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 Hsiao et al. (2020) 연구에 따르면, CBMT 시험을 처음 응시하는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평균 응시자들의 시험 합격률은 85.6%였다. 하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제 학생들의 경우 합격률이 50%로 감소했다.

또한 일부 음악치료 프로그램 학과장들은 국제 학생들이 CBMT 시험에서 관용구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 맥락에 따른 어휘, 문법 등을 접할 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의 합격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Meadows & Eyre, 2020). 또한 3 시간이라는 엄격한 시간 제약도 어려울 수 있다. 일부 국제 학생들의 경우 영어로 각 문제를 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시간 제약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충분한 시간 안에 풀기에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언어 장벽과 시간 제약이 결합되면 학생들은 혼란을 겪고, 성급한 답변을 내거나 오류를 범할 위험이 높아져 시험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평생 교육(continuing education) 100 학점을 이수하고 최신 지식과 근거 기반 실무를 유지하기 위해 5 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해야 한다 (CBMT, 2020b). 만약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들은 30 일 후에 시험료를 재지불하고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다. 학위 과정을 마치고 MT-BC 자격증을 받은 후에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미국에서 머물며 취업을 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미국 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만약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 ‘선택적 실습 교육’(OPT)을 신청할 수 있다.

선택적 실습 교육 (OPT)

선택적 실습 교육(OPT)은 F-1 학생 비자를 소지한 국제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OPT 를 통해 학생들은 졸업 이후 학위를 취득한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2). 국제 음악치료 학생을 포함한 비 STEM 계열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졸업 전 또는 졸업 후에 최대 12 개월 동안 OPT 를 받을 자격이 있다 (Israel & Batalova, 2021;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2). 하지만 정부에서 승인된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관련 전공 학생들은 24 개월 연장하여 최대 36 개월까지 OPT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 후 OPT 를 시작한다. OPT 를 신청하려는 학생들은 먼저 유학생 담당자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SEVIS)에 OPT 를 추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유학생 담당자가 OPT 를 신청한 후 국제 학생들은 I-765 온라인 서류를 작성해 수수료와 함께 미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이민국(USCIS)에 제출하면 OPT 신청이 완료된다. OPT 신청이 승인되면 이민국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 증명으로 사용되는 고용

허가증(EAD)을 발급해 준다. 학생들은 해당 카드에 OPT 라는 표시와 유효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예를 들어 이름이나 생년월일에 오타)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용 허가증 발급 전에는 절대 일을 시작할 수 없으며, 이민국 승인 전에 일을 하다가 적발 시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 학생들은 고용 허가증을 수령 후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OPT 기간 동안 학생들은 고용 기록을 철저히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고용 허가증(EAD), 입사 제안서, 말은 직책, 근무 기간 또는 근무 일자, 감독자 이름/연락처, 업무 내용 등을 포함한 각 직업과 관련된 문서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록을 개인 파일로 보관할 경우 향후 이민 혜택을 신청할 때 합법적인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OPT에는 특정 규칙과 보고 요구 사항이 있으므로 학생들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OPT가 만료된 후, STEM이 아닌 학위를 가진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이민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F-1 기록을 새로운 학위 프로그램으로 이전할 수 있는 60일의 유예 기간이 허용된다. OPT를 신청하기 전에 국제 음악 치료 학생들은 졸업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졸업 날짜를 확인하며 OPT추천서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지도 교수와 OPT 신청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학생들은 유학생 담당자와 해당 교육 기관에서의 OPT 신청과 관련된 자격 기준, 지원 절차, 신청 마감일, 제한 사항 등을 논의할 것을 권장한다.

취업비자 (H-1B)

졸업 후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12개월의 OPT를 마친 후 H-1B 비이민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흔히 “취업 비자”로 알려진 H-1B 프로그램은 미국 내 회사나 다른 고용주가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전문 직종에 임시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1). H-1B 비자는 자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 신청자와 청원자 간에 명확한 고용인/피고용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OPT 기간 동안 F-1 비자를 소지한 국제 학생들은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 연장 자격이 있을 경우에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다. 반면에 H-1B 비자 신청자는 최소 3년 동안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신청자 수로 인해 H-1B 취업 비자에 대한 수요가 연간 상한선(일반적으로 85,000명)에 도달하면, 비자 신청 자격이 있는 지원자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 비자를 배정한다 (VisaNation, 2024). H-1B 비자 한도는 매 회계 연도마다 H-1B 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인원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H-1B 비자를 지원하기 원하는 국제 음악치료 학생의 경우 진로 계획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등 교육 기관 및 관련 또는 제휴 비영리 단체,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 기관 등과 같이 일부 자격을 갖춘 조직들은 H-1B 한도(H-1B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개인 수에 대한 연간 분기)에서 면제가 된다 (USCIS, 2023b).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민간 기업에서 경력을 쌓고자 할 경우에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할 수도 있다 (Amuedo-Dorantes & Furtado, 2019).

취업 비자를 신청하려면 이를 지원해 줄 미국 내 스폰서 회사(고용주)가 필요하다.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신청자의 직업이 반드시 전문직에 속해야 한다. 전문직이란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한 이론과 응용 모두에 대한 지식을 갖춘, 최소한 학사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3a). 따라서 국제 학생들은 취업 지원 과정을 시작할 때부터 고용주가 취업 비자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에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양측이 합의하면, 고용주는 비이민 외국인을 대신하여 이민국에 H-1B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구체적인 H-1B 신청 절차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 비자 신청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고용주는 먼저 노동부(DOL)로부터 최저 임금 결정을 받은 후에 연방 노동청에 노동 조건 신청서(LCA)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H-1B 비자 스폰서인 고용주는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H-1B 청원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청원 서류에는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인 I-129 양식, 증빙 서류, 수수료가 포함된다. 그 다음 고용주는 이민국에 H-1B 청원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통지를 받게 된다. H-1B 비자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국제 음악 치료 학생들은 고용주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고 신청서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고용주가 H-1B 청원 절차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엔 학생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H-1B 비자 전문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Herman, 2022). 미국이민국은 일반적으로 매년 4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회계 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까지 H-1B 한도 청원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하지만 모든 접수는 H-1B 비자 발급 한도 안에서만 진행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용주는 4월 1일이나 그 이후에 H-1B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OPT가 만료되는 해의 4월 1일 이전에 고용주와 H-1B 신청에 대한 옵션을 논의하는 것이 권장한다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2024). H-1B 신청 과정에서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과 고용주 간의 효과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H-1B 청원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고용주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 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고용주가 학생들을 지원할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H-1B 비자 청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지원을 모색 할 때 성공적인 비자 취득을 도울 수 있다.

국제 학생들이 H-1B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에 다다르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비자 연장을 신청하거나 다른 이민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취업 기반이나 가족 후원을 통한 영주권(즉, 그린 카드)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또 다른 H-1B 비자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H-1B 비자 신분이었던 사람들은 최소 1년 동안 미국 밖에서 거주한 후에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H-1B 비자의 6년 제한 기간을 초과하여 비자 신분 상태를 연장하려면, 스폰서인 고용주가 H-1B 비자 소지자를 대신해 제때에 영주권 취득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H-1B 비자 소지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 H-1B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H-1B 비이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해당 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최대 체류 날짜’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원한다면 이 최대 체류 날짜가 지나기 훨씬 이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H-1B 비자 이전 과정 전반에 걸쳐 고용주, H-1B 비자 소비자인 직원, 법률 고문 간의 개방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명확한 서류 교환을 통해 이민국의 잠재적인 문제나 질문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전체 이전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

F-1 학생 비자를 소지한 국제 음악 치료 학생들은 음악치료 학위 프로그램을 졸업한 후 각자의 자격 요건과 상황에 따라 O-1 비자나 J-1 비자 같은 다른 비자 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 학생들이 특정 비자 카테고리과 관련된 규정들을 알아보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지도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도 교수는 국제 학생들이 졸업 후에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비자 옵션을 인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가능한 경우, 미국에서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과 국제 학생들 간의 연결을 도와줄 수도 있으며, 이 동문들이 학생들이 신분변경 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돕는 조언과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

국제 학생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시작하면 유학 생활 전반에 걸쳐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그들의 미국 생활, 만족도,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한 후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데 겪는 어려움과 동시에 재정적, 심리적, 학업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Khanal & Gaulee, 2019).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 역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음악 기술과 레퍼토리를 개발과 같은 전공에 관련된 어려움도 추가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이해하는 것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성장을 지원하고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는 학생들이 학습자에서 전문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돕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화적응 과정

전 세계에서 온 국제 학생들은 각자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미국에 온다. 문화란 특정한 공동체나 사회에 의해 정의되며, 관계의 본질,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환경을

조직하는 방식에 관한 특정한 신념, 규범 및 가치를 포함한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2016).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본래 익숙한 문화를 떠나 다른 사회적 규범, 언어, 교육 시스템, 사회적 기대가 있는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한 후 새로운 문화의 가치, 신념, 행동, 관습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동시에 본국에서 형성한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탐색하게 된다. 이 과정을 문화적응 과정(acclturation process)이라고 한다 (Kim, 2011). 적응 과정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 충격, 인종 차별 등 여러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이 문화적응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Sue 와 Sue (2016)는 기존의 ‘소수 집단 정체성 발달 모델’(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model, MID)을 기반으로 한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 발달 이론’(Racial/Cultural Identity Development model, R/CID)을 개발했다. R/CID 모델은 다섯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a) 미국 사회의 주류문화에 대한 순응, (b) 주류 문화와 자신의 문화 간의 불일치, (c) 주류 문화에 대한 저항, (d) 자신의 인종적 자율성(autonomy)과 모든 인종 집단의 다양성에 대한 성찰, (e) 자신의 문화적 교차성(intersectionality)에 대한 통합적 인식, 그리고 백인 문화적 가치에 대해 선택적으로 인정하거나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더 높아진 자율성과 인종적 자부심 (Sue & Sue, 2016). 국제 학생들이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라고 한다 (Wei et al., 2007). 음악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며, 실습과 인턴십 과정에서 커뮤니티 내에서 사람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Kim, 2011). 또 음악적 기술과 레퍼토리 개발도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음악치료는 국제 학생들에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전공으로 여겨질 수 있다.

문화 충격은 익숙한 문화에서 낯선 문화로 이동하는 개인이나 그룹의 경험을 의미하는데, 이는 문화적응 과정의 일부로 간주된다 (Demes & Geeraert, 2015). 문화 충격은 주로 급격한 문화적 변화로 인해 겪는 외로움, 불안, 혼란과 같은 부정적인 신체적 또는 심리적 증상으로 특징지어진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d.; Oberg, 1960). 개인이 문화 충격을 경험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기여하며,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의복, 윤리, 문화적 성향 (예: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음식, 언어, 구조, 인식, 권력거리(power distance), 종교, 규칙, 시간 지향성, 전통, 날씨와 관련된 요인들이 있다 (Rajasekar & Renand, 2013). 문화적 조정은 감정적, 심리적, 행동적, 인지적, 생리적인 적응 과정을 포함하여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Pedersen, 1994). 문화 충격은 전체적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한 부분으로, 그 강도와 지속 기간은 문화적 스트레스와 적응이 밀려오고 물러가기를 반복하는 파도로 비유할 수 있다 (Demes & Geeraert, 2015). 즉, 개인들은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강렬한 고통을 겪다가 이후에는 적응하고 비교적 안정된 기간을 경험할 수 있다.

국제 학생들의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는 모국과 유학 국가 간의 언어적 문화적 거리 차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화적 거리(cultural distance)란 모국 문화와 유학 국가의 문화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Takayama, 2013). 예를 들어, Kim (2011)은 음악 치료를 공부하는 아시아 학생들이 유럽 출신 학생들보다 더 큰 압박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는 아시아 학생들이 언어 능숙도(예: 어조, 문장 구조의 차이, 문자 대신 글자로 단어를 구성하는 방식 등)와 동서양 간의 문화적 거리(예: 가치관, 규범 등)와 관련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다. 제한된 문화적 공감대와 제 2 언어 사용으로 인해 아시아 유학생들이 현지 학생들과의 대화에 적응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현지 학생들과 상호작용에서 편견, 무시, 외로움, 오해의 가능성을 높이고 (Lan, 2020), 이는 차별을 받을 확률을 더욱 증가시킨다 (Kim, 2011).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인도 출신의 국제 학생들은 캐나다와 유럽 출신 학생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Lee, 2007). 신인종주의(Neo-racism)는 피부색이나 유전적인 인종적 차이가 아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이나 편견을 의미한다 (Buchanan, 2018). 국제 학생들은 서구 국가에서의 교육 경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고했지만, 교수진의 편파적인 태도, 동기들로부터의 소외감, 자신의 민족에 대한 무시, 무례함 등과 같은 부당한 대우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Lee et al., 2017). 일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많은 미국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개방적이지 않거나 다른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현지 학생들과의 우정을 쌓는 것이 더 어렵다는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했다 (Lan, 2020).

또한, 2020년에 시작된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시아계 국제 학생들은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괴롭힘, 폭력으로 인해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모든 학생들이 그 기간 동안 겪었던 전혀 없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다.

재정적, 심리적 스트레스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학업 중에 다양한 재정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제 학생들에게 많은 비용이 든다. 미국의 많은 대학교들은 미국 현지 학생들보다 국제 학생들에게 훨씬 높은 학비를 부과한다. 이러한 학비는 주(state), 기관, 전공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지만, 주립 대학의 경우 국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타주(out-of-state)” 또는 “국제 학생”으로 분류되어 훨씬 높은 학비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주/외국 학생들의 학비는 \$23,630 인 반면, 거주자(in-state) 학생들의 학비는 \$10,662 정도이다 (Kerr & Wood, 2023). 높은 학비 외에도, 일부 국제 학생들은 가족, 장학금, 조교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Lan, 2020). F-1 학생 비자의 제한으로 인해 국제 학생들은 CPT 나 OPT 를 제외하고는 캠퍼스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0). 캠퍼스 내 근무는 제한된 구직 기회, 특정 자격 요건 (예: 근로 장학생만 채용), 제한된 근무 시간으로 인해서 국제 학생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미국 학생들과 달리 F-1 비자를 소지한 국제 학생들은 학기 중에 주당 최대 20 시간의 파트타임 근무만 가능하며, 방학이나 휴일 기간에만 풀타임 근무(주당 최대 노동시간 40 시간)가 허용된다 (Castonguay, 2021; Federal Student Aid, n.d.). 제한적으로 허락된 근무 시간으로 인해 국제 학생들은 그들의 제한된 경제적 자원 안에서 주거비, 식비, 교재비, 교통비, 그리고 기타 생활비 등을 충당 해야만 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게다가 캠퍼스 외 근무 제한으로 인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전공 분야나 다른 관심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제한적이고, 이는 향후 경력 전망과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을 해야 하는 국제 학생들의 경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공부하는 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Lee, 2020). 제한된 근무 시간은 국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학업 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여전히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여 학업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일부 국제 음악치료 전공 학생들은 언어적 어려움 때문에 학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미래 선행, 보충 영어 과정을 수강해야 할 수도 있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보고한다 (Kim, 2011). 전반적으로 일부 국제 학생들은 재정적인 스트레스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심한 재정적 압박이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학생들에게 생활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심리적 스트레스이다. Kim (2011)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 학생들 (N = 97 명)을 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IS)의 평균 총점 (M = 83.04)은 전 세계 평균 총점 (M = 66.3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설문 참가자들 중 12.9%가 “경고 신호” 이상의 점수를 얻었고 심리적인 지원을 필요로 했다 (Kim, 2011). 이 결과들은 국제 음악치료 전공 학생들이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예: 기말 고사 기간)나 사회적인 격동기(예: 글로벌 팬데믹)에 심리적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담 등 외부 지원을 찾아야 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과 같은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일부 국제 학생들은 교수진이나 심리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Ahad et al., 2023).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일부 증상으로는 인지적 피로나 집중력 저하와 같은 신체적 불편감, 고립감, 우울감, 실망감, 정신적 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향수), 분노, 좌절감 등의 심리적 증상이 포함된다 (Levine et al., 2016). 이러한 증상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 중 종종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과 공통된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겪는 흔한 경험일 수 있다 (Lee, 2020).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국제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악화되기 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증상들을 초기에 관리하면 이후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복지와 학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학업적 어려움

미국에서 공부하는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언어 능력과 교육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학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영어 준비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한다 (Gomes, 2020). 영어 실력의 부족은 일상 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학업적 스트레스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영어로 읽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글쓰기, 읽기, 발표, 토론 수업 등은 모두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특히 토론 수업과 발표는 많은 국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과제이다 (Kim, 2011). Lan (2020)의 연구에 참여한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토론 수업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고, 본인들의 제한된 영어 구사능력 때문에 동료 학생들이나 교수님과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제 학생들에게는 음악 치료나 관련된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여 읽고 쓰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다.

미국의 교육 방식은 국제 학생들이 모국에서 경험했던 교육 방식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Abu Rabia, 2017). 예를 들어, 일본과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토론하거나 글로 쓰기보다는 강의를 듣는 데 익숙할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교수들이 수업 토론과 서면 반응을 평가와 성적의 일환으로 중시할 수 있다 (Lan, 2020). 또 다른 예로 Kuo (2011)는 중동, 아라비아만, 북아프리카와 같이 주로 아랍어를 사용하는 일부 아랍 국가의 학생들이 미국 교수들이 기대하는 수업 참여와 노트 필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Abu Rabia, 2017). 국제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의 학업 방식에 맞는 새로운 학습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Lan, 2020).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에게는 임상 실습 또한 중요한 학업적 도전 요소가 될 수 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국제 학생들이 임상 감독자나 내담자와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부 국제 학생들은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음악치료 세션을 진행하거나 미국인들에게 익숙한 노래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Lan, 2020). 다른 학생들은 본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나 미국 내 다양한 지역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Lan, 2020). 이러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국제 음악치료 학생과 임상 감독자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dwards & Daveson, 2004). 예를 들어 ‘문화 간 음악치료 감독’ (cross-cultural music therapy supervision) 시 문화적 장벽, 인종, 성별에 관련된 문제, 권력 불균형, 다양한 시각과 기대, 임상 감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로 인해 국제 학생과 임상 감독자 사이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Kim, 2008). 따라서 임상 실습에서 겪는 어려움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악적 기술과 레퍼토리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음악 기술과 레퍼토리 개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국 음악치료협회(AMTA)는 음악치료 학생들과 교육자들을 위한 전문 역량 목록을 제공했고 음악 기초, 임상 기초, 음악치료 기초 세 가지 주요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음악 기초 분야에는 노래, 피아노, 기타, 타악기를 다루는 기술을 갖추어야 하고, 악보가 있거나 없이 전통 음악, 민속 노래, 팝송의 기본적 레퍼토리를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AMTA, 2021).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자국의 음악과 서양 음악의 스타일과 구조가 다른 점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어떤 학생들은 비원어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영어의 발음 소리를 가진 가사를 발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Chang, 2000). 또한 국제 학생들은 미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노래들을 모르기 때문에 노래 선택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Lan, 2020). 미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학생들은 미국인들의 세대를 넘나드는, 그들이 선호하고 친숙한 노래들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음악 레퍼토리와 스타일에 숙지하고, 연주할 수 있는 노래들을 확장하며, 치료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다.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증거 기반 모범 사례

본 논문의 저자들은 국제 학생들이 학습자에서 전문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겪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돕기 위해 관련 문헌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저자들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의 학습자에서 전문가로의 전환에 관한 논문들을 찾지 못했지만, 간호학, 심리학, 및 관련 의료 분야의 국제 학생들의 전문가로의 전환에 대해 다룬 여러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 논문들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자 하는 음악치료 학생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문헌들은 언어 능력 향상, 캠퍼스 지원 활용, 사회적 네트워크 개발, 문화적 겸손 증진의 네 가지 모범 사례를 추천한다.

언어 능력 향상

언어 능력은 국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경력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Martirosyan et al. (2015)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 학생들 중 영어 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학업 성취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국제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직업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냈고 (Han et al., 2022), 영어 실력이 부족할 경우 영어권 국가에서의 취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Pang et al., 2021). 따라서 음악치료 학생들은 듣기, 말하기, 읽기, 임상 글쓰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고 이해력과 표현력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Fry와 Mumford (2011)는 비영어권 국제 학생들이 의사소통, 특히 듣기와 말하기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비영어권 사람이 영어를 사용할 때 자신의 모국어 말투와 억양이 두드러지는 경우 조금 천천히 말하고 듣는 상대방과 눈빛을 유지하면서 말하면 상대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둘째, 국제 학생들은 대화 중에 언어적 메시지 뿐 아니라 비언어적 (즉, 비구두적) 신호들을 관찰하고 파악할 수 있다. 비언어적 신호들은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 자세, 제스처, 눈맞춤, 접촉, 공간, 목소리 톤 등이 포함된다 (Segal et al., 2022). 음악치료 임상 실습 중 내담자가 명확한 언어 표현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악치료 학생들은 내담자의 비언어적 신호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셋째로, Fry와 Mumford (2011)는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일 경우 대화 중에 흔히 오해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제 학생들이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기를 권장한다. 영어 독해와 임상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에 할애하는 시간을 잘 관리하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글을 작성하는 것이 글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업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Sangganjanavanich et al., 2011). 또한 국제 학생들은 언어 능력과 기타 필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글쓰기 센터 (writing center)와 같은 캠퍼스 내의 자원과 지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캠퍼스 내 서비스 활용

국제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권장된다.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학교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고 무료이다. 캠퍼스 내에는 영어로 글쓰기, 말하기, 대화를 도와주는 수사학 센터(rhetoric center)들이 있을 수 있다. 글쓰기 센터(writing center)는 주로 4년제 대학들에 있으며 학생들이 더 효과적이고 자신감 있게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글쓰기 센터에서는 영어 글쓰기에 도움을 받고 싶은 학생들에게 워크숍, 1:1 또는 그룹 상담을 제공하며 수업 과제, 학위 논문과 같은 글쓰기 프로젝트에 관련해 조언을 제공하고 지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말하기 센터(speaking center)는 수업 발표와 같은 구술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학술 지원 센터이다.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말하기 센터에서 1:1 상담을 통해 음악치료 세션을 진행할 때 필요한 명확한 지시, 구조, 전달을 포함한 말하기 능력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말하기 센터는 학업이나 업무 환경에서 필요한 말하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반면 회화 센터(conversation center)는 다양한 주제로 미국인 학생들과 대화함으로써 영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유창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 학생들은 수사학 센터 이외에도 대학에서 제공되는 졸업 후 전환과 진로에 관련 서비스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환과 진로 서비스는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국제 학생들이 유학 중인 나라에서 취업 과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졸업 후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Fakunle, 2021).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제 학생들에게 현지 고용주에 대한 정보, 이력서 작성 지원, 구직신청서 작성 지원, 면접 기술 연습, 취업 및 경력 시작과 관련된 기타 기술 개발 등을 제공한다 (John McKittrick et al., 2020). 국제 학생들이 만약 비자, OPT/CPT, 고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제와 절차에 관해 질문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국제 학생처나 이민국이 유용한 자원이 된다 (Sangganjanavanich et al., 2011). 대부분의 대학은 국제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적어도 SEVIS 시스템에 익숙한 유학생 담당자가 있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이민 규정, 취업과 관련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학교 내 다른 서비스는 학사 상담 센터, 과외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문화 관련 센터 등이 있다. 학생들은 학사 상담 센터에서 수업이나 커리큘럼 같은 학사적인 문제나 진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사 상담 센터에서 학생들은 학업 상담자(academic advisor)와 함께 각 과목의 난이도, 시간, 캠퍼스 이동 거리, 졸업 예정 연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수업을 찾고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보충 영어 과목이 필요한 국제 학생들의 경우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과목을 등록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에 따라 학업 상담자들은 학과 내에 위치할 수도 있고 캠퍼스에 별도의 센터에 있을 수도 있다.

수업을 듣다가 이해가 잘 가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제 학생들은 교내의 과외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튜터링 센터는 보충 학습 세션, 특정 과목이나 학습 분야에 대한 지도, 온라인 팁, 학습 전략, 학습 스킬 개발 등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미국 고등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센터로 초기 상담, 개인 상담, 그룹 상담, 위기 관리 및 캠퍼스나 지역 자원을 추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어려움(스트레스, 문화 충격, 향수병, 외로움 등)을 겪는 국제 학생들은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스스로를 잘 돌보는 힘을 기를 수 있게 지원해주는 교내 상담 및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센터는 국제 학생들에게 보다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며, 다른 국제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문화와 예절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처럼 미국 대학들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있다. 국제 학생들이 낯선 문화, 환경,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교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어떤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미국 내 다른 이주자 그룹과 비교했을 때 국제 학생들이 가지는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캠퍼스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Han et al., 2022). 미국 대학들은 국제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른 문화와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국제 프로그램, 국제 학생 관련 단체 및 학생회와 같은 다양한 학생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국제 학생들은 또한 관계 발전과 지역 사회 네트워크 형성, 정신 건강 유지를 위해 친구들, 룸메이트, 동료, 교수들에게 지원을 구할 수 있다 (Yang et al., 2021). 일부 교수들은 유학생들에게 직업 관련 정보, 지원,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학생들의 졸업 후 전환과 진로 과정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Han et al., 2022). 또한 캠퍼스나 같은 직업 분야에서 경험과 기여를 공유하는 롤 모델은 국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감과 지원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Yang et al., 2021).

네트워킹, 즉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적 또는 사회적 인맥을 발전시키는 것(Merriam Webster Dictionary, n.d. -a)은 국제 학생들에게 캠퍼스와 지역 사회 내에서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 학생들은 동일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경력 개발에도 도움이 되며 졸업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Sangganjanavanich et al., 2011). 다른 국제 학생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서로 조언을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다 (Han et al., 2022). 또한 국제 학생들은 지역 사회,

종교 모임 또는 영적 모임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 (Nunes & Arthur, 2013; Yang et al., 2021).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은 다양한 기회와 현지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국제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교내의 음악치료 학생 동아리나 음악치료 협회에 가입하거나, 지역 또는 전국 음악치료 학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에 참석하면서 음악치료 분야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많은 대학들은 음악치료와 같이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나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들이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미국 음악치료협회(AMTA)에는 미국 내 각 지역 및 전국 음악치료 학생 단체가 있다. 이런 학생 단체들은 다른 음악치료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 확장을 위한 워크숍과 연사 초청,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전문적인 모임을 가진다. 국제 학생들 또한 지역 및 전국 음악치료 학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미국 전역의 다양한 기관과 지역에서 온 교육자, 인턴십 책임자, 연구자들, 전문 치료사들을 만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토론에 참여하고,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다른 학생들이나 전문가와 정보나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들을 통해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자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며, 개인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문화적 역량, 문화지능과 문화적 겸손 향상

국제 학생 관련 문헌에서 연구자들은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 문화지능(cultural intelligence), 문화적 겸손(cultural humility)과 같은 용어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학생들과 교수진이 학생들이 유학 중인 나라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용어들의 정의, 설명, 개념화, 적용 방법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견해가 다양하지만, 국제 학생들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들에 익숙해지고 적응하며 발전시키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문화적 역량은 “개인과 시스템이 모든 문화, 언어, 계급, 인종, 민족적 배경, 종교 및 기타 다양한 요소를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상대방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Earley & Ang, 2003, p. 263). 문화적 역량은 종종 달성해야 할 기술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단지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학업과 사회적 통합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했으며, 국제 학생들이 문화적 역량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Cheng & Liu, 2021). 국제 학생들은 미국의 규범, 관습, 가치를 배우고 캠퍼스, 지역, 주류 문화와 최대한 많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국제 학생들은 미국 문화 내의 다양한 집단과 지역적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Forinash (2001)는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자신과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 규범, 세계관, 성 역할, 행동, 의사소통 방식, 다양한 인종 또는 민족 집단의 사회-정치적 역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음악에 대해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익숙함은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하루 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임상 훈련 동안에 지속적인 지원과 안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문화적 역량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지능(cultural intelligence)이다 (Wang et al., 2015).

문화지능 또는 문화적 지수(CQ)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고 그 차이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Earley & Ang, 2003, p. 9). 전반적으로 문화지능은 국제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 환경, 상황, 상호작용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문화지능(CQ)이 높은 학생일수록 문화 간 적응에서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문화적응 과정을 개선하고, 주류 문화와 더 많은 교류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Hong et al., 2021). 문화지능은 지속적인 과정이고 국제 학생들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대신 유학 기간 동안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지적, 메타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전략을 포함한다.

문화지능은 다차원 개념으로 (a) 인지적, (b) 메타인지적, (c) 동기적, (d) 행동적 역량 네 가지로 구성된다 (Ang et al., 2007). 인지적 문화지능은 다른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숙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른 문화에서 습득한 가치, 문화적 규범, 행동 등을 포함한다 (Ang et al., 2019; Kurpis & Hunter, 2017). 메타인지적 문화지능은 문화간 상호작용 중에 문화적 역동성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탐색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Kurpis & Hunter, 2017). 동기적 문화지능은 문화 간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타 문화를 학습하고 적응하고자 하는 구동력을 의미한다 (Kurpis & Hunter, 2017; Shu et al., 2017). 마지막으로, 행동적 문화지능은 새로운 문화를 직면할 때 적절하게 반응하고 내재적 동기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Kurpis & Hunter, 2017). 메타인지적, 인지적, 동기적 역량은 정신적인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행동은 행동적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g et al., 2019). 따라서 문화지능은 단순히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는 것이 아닌, 자신의 문화지능 수준을 잘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능력, 배우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 알고 있는 것을 실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연결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문화지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제 음악치료 학생은 이 네 가지 역량 영역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인지적, 메타인지적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은 문화 인식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Earley & Ang, 2003).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미국 지역사회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일하기 원한다면 그 지역의 문화, 사람, 근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Kim, 2011; Sangganjanavanich et al., 2011). 예를 들어 인지적 문화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음악치료와 관련된 봉사활동이나 지역 사회의 서비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학생들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의사소통 스타일, 다른 언어와 다른 비언어적 신호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 기술을 연습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국제 학생들은 인종과 민족을 넘어 자신이 가진 가치관, 신념, 편견, 삶의 경험을 어떻게 계획하고, 모니터하며 생각하는지를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들이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및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예를 들어, 국제 학생들은 임상 치료 환경에서 상호작용할 때 이를 관찰한 신뢰할 만한 임상 감독자, 지도 교수, 동료, 멘토, 혹은 음악 치료사들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은 학생들이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고 그에 맞게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메타인지적 측면은 국제 학생들이 문화에 대한 이해, 인식, 사고를 더 잘 평가하고 문화적 역량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동기적 문화지능에서는 목표와 자기 효능감이 중요하고 보완적인 요소들이다. 명확한 목표와 자신감을 가진 국제 학생들은 문화적 차이와 낯선 상황을 다루는 데 더 동기 부여가 되는 경향이 있다 (Earley & Ang, 2003, p. 282). 동기 부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들은 문화 간 상호작용을 보다 잘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평가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기, 새로 배운 체스처를 친구나 동료와 연습하기, 수업 중에 최소한 1 번은 대답하거나 질문 하기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국제 학생들은 자신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 향상된다. 자기 효능감이 향상됨에 따라 학생들은 추가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서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 통해 동료, 교수진, 지역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환경과 사회적 인정이 학생의 자기 효능감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학생들이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교차문화 교류를 계속 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국제 학생들은 동기 부여 능력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Earley & Ang, 2003).

행동 역량에는 유학 중인 국가의 문화(즉, 주류 문화)에서 의미 있는 행동과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포함되며, 이를 해석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스키마(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조직화하고 정리하는 방식)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후 문화 간 상호작용에서 얻은 정보를 이러한 스키마에 통합하는 기술

또한 행동 역량에 중요한 부분이다 (Earley & Ang, 2003). 국제 학생들은 이미 자국 문화에서 가지고 온 자신의 배경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스키마 가지고 있다. 자신들이 유학하는 국가에서 경험하는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인식함으로써 기존의 스키마에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고 또 새로운 스키마를 발전시키게 된다. 문화 간 상호작용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은 새로 배운 정보를 계속 통합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의 행동 역량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들이 유학하는 국가의 문화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준다 (Earley & Ang, 2003).

이 같은 네 가지 인지적, 메타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역량은 국제 학생들의 문화지능과 전반적인 문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역량들이 자연스러운 능력이나 타고난 성격적 특성 때문이 아닌 개발 해야 하는 기술임을 알게 되면 국제 학생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문화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어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Yang et al., 2021). 문화적 역량(즉,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지능(즉,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적응 전략)은 주로 개인의 외적인 능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내적 자기 통찰과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학습의 의지는 문화간 상호작용에서 동등하게 중요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국제 학생들을 위해 교수, 동료, 관리자, 국제 학생들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문화 겸손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문화적 겸손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기 성찰과 발견 과정을 포함한다 (Yeager & Bauer-Wu, 2013). 문화적 겸손은 Tervalon 과 Murray-Garcia (1998)에 의해 보건의료 환경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문화적 겸손은 (a) 평생 학습에 대한 헌신을 동반한 지속적인 자기 평가와 자기 비평을 필요로 하며, (b)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며 겸손을 수용함으로써 권력 불균형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c) 공동체 중심의 성격을 강조하며, 모든 실무자로부터 옹호를 추구한다; (d) 제도적 자기 성찰과 자기 비평, 다양한 교수진, 문화적 문제를 다루는 명시적 교육 목표를 통해 육성될 수 있다. 미국 내 인종적,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모든 음악 치료 학생들, 음악 치료사들, 교육자 모두가 불감증과 불평등한 의료 서비스 제공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문화적 겸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Anderson et al., 2003).

Foronda 등 (2016)은 기존 문헌에서 여러 다른 모델들을 통합하여 국제 학생들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 겸손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예: Campinha-Bacote, 2002; Chang et al., 2012). 이 모델에서는 개방성, 자기 인식,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는 자아 없음(egoless), 지지적 상호작용, 자기 성찰 및 비평이 포함되어 있다. 개방성은 문화적 겸손의 첫 단계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꺼이 탐구하려는 태도”로 정의되는데 문화적 겸손이 자리 잡기 위해선 먼저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열려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Foronda et al., 2016, p. 211). 음악치료 내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한 특성이며 (AMTA, 2024), “변화에 대한 개방성”도 음악 치료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고려된다 (Vega, 2010). 이 개방성을 발전시키는 단계에는 문화적 학습과 탐색을 통해 문화적 차이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하며, 문화적 편견을 인식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사용하여 사회 정의를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기르는 것은 전문적 실무에서 문화적 겸손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계이며 (Foronda et al., 2016), 미국 현지 학생들과 국제 학생들의 교육과 훈련에서도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자기 인식은 “자신의 강점, 한계, 가치관, 신념, 행동, 타인에 대한 외모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정의된다 (Foronda 등, 2016, p. 211). 이러한 자기 인식은 “몸의 신호, 생각과 감정, 타인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에 집중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Yeager & Bauer-Wu, 2013, p. 254). 주의력과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자기 서사와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Yeager & Bauer-Wu, 2013). 치료사들에게는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 치료사의 개인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치료 관계 내에서 자기인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Pieterse et al, 2013). Hadley 와 Norris (2016)는 음악 치료사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화적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전략들이

제시한다: (a) 음악치료사들이 치료 공간에서 유럽 중심적 사고를 의도치 않게 지지하며 불공정과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사회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 (b) 문화적 정체성을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분석에 참여하는 것, (c) 자아와의 의사소통(*intrapersonal communication*)을 탐구하고 위계적인(*hierarchical*) 사고에 전체적인(*holistic*) 사고로의 전환을 위해 마음 챙김 연습을 훈련하는 것이 포함된다 (Hadley & Norris, 2016). 미국 현지 학생들과 국제 학생들, 음악 치료사, 교육자들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일할 때 자신의 가치관, 신념,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Hadley & Norris, 2016). 이러한 인식은 문화적 겸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초 요소가 된다 (Foronda et al., 2016).

자기 없음(*Egoless*)은 겸손함을 의미하며, “모든 개인의 가치를 수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계층적이거나 권력 차별이 없음을 의미한다 (Foronda et al., 2016, p. 212). 문화적 겸손의 이러한 속성은 음악 치료를 포함한 많은 의료 분야 내의 윤리와 기준과 일치한다. 음악 치료사들은 모든 환경에서 모든 개인에게 고품질의 차별이 없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존중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MTA, 2015). 음악치료 협회(AMTA)는 “환자와 그들의 가족, 서비스 수령자, 학생, 인턴, 수련생 (슈퍼비전을 받는 대상), 동료”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AMTA, 2015, *Non-discrimination And Equal Opportunity Policy*, para. 3). 이 윤리적 지침에 따라 음악치료사들은 동등한 인간 권리를 지지하며 권력 차별과 위계(*hierarchy*)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Foronda et al., 2016). 이 신념 체계는 음악 치료사들이 국제 학생들과 상호작용 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도 교수와 임상 감독자들은 국제 학생들의 문화와 시각을 존중하고 권력 차이와 위계를 인식함으로써 국제 학생과 내담자와의 관계를 보다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 차별이나 편견을 피할 수 있다. 국제 학생들은 지도 교수와 감독자들의 이러한 이타적이고 겸손한 태도를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써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점을 본받을 수 있다.

지지적 상호작용이란 “긍정적인 인간 교류로 이어지는 개인들의 존재의 교차점”으로 정의된다 (Foronda et al., 2016, p. 212). 본질적으로, 지지적 상호작용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개인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적극적인 청취와 공감, 개인의 몸과 마음, 영혼에 대한 관심, 마음 챙김 의사소통(*mindful communication*)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며, 환자 중심적 접근을 통해 지지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Chang et al., 2012; Jones et al., 2019). 이러한 지지적 상호작용은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 형성에 필수적이다. 음악 치료사들은 “내담자의 기능과 건강에 지지하는 치료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음악을 기반으로 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지지적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CBMT, 2021, *Potential for Harm*, p. 2). 이러한 상호작용은 국제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시에도 매우 중요하다. 임상 감독자와 교육자들은 학생들과 상호작용 할 때 적극적인 청취와 공감을 나타내며, 학생 중심의 접근 방법을 통해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수용하고 학생들을 존중하는 문화적 겸손의 태도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Chang et al., 2012).

자기 성찰과 비평은 “자신의 생각, 감정 및 행동을 반성하는 비판적 과정”을 의미한다 (Foronda et al., 2016, p. 212). 의료 전문가들이 자신의 배경, 정체성, 세상에 대한 가정, 이러한 가정의 근거/출처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자기 비평을 하기를 권장한다 (Chang et al., 2012).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념, 정체성, 편견에 대해 관찰하고 조사함으로써 이러한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투영시키는 지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기 비평을 받아들이면 어떤 문화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Hadley와 Norris (2016)는 음악 치료사들이 문화적 소수자들에게 단순히 외부적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고 깊이 있는 자기 성찰과 내성(*introspection*,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관찰하는 접근법; Cherry, 2023)에 중점을 두기를 강조한다. 이 접근 방식은 개인의 고유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이해 관계자들이 의미 있는 내성과 자기 질문을 하게끔 돕는다 (Hadley & Norris, 2016). Edwards (2022)는 음악 치료 교육과 훈련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저자들을 교육과정에 통합하고, 수업에서 배운 이론이 내담자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규범을 고려하는지 확인할 것을 촉구한다 (Edwards, 2022). 문화적 자기 성찰이

어려울 수 있지만 (Hadley & Norris, 2016), “가장 취약하고 역사적으로 소외된 정체성을 가진 내담자나 치료사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음악치료 직업을 발전시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러한 문화적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Edwards, 2022, p. 34). 따라서 교육과 훈련에서 임상 감독자, 교육자, 국제 학생들, 동료들은 호기심, 내성(introspection), 자기 성찰, 자기 비평을 통해 각자의 고유한 시각을 이해하고 문화적 겸손을 실천해야 한다.

문화적 겸손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방성, 자기 인식, 자아 없음(egoless), 지지적 상호작용, 자기 성찰 및 비평이라는 속성들은 도움이 되며 이를 실행할 시 “상호 협력, 파트너십, 존중, 최적의 치료, 평생 학습”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Foronda et al., 2016, p. 213). 이러한 속성들은 학생들, 치료사들, 교육자들 모두가 개인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Jennings & Skovholt, 1999). 따라서 음악치료 학생들과 이해관계자들은 문화적 겸손의 속성들을 의식적으로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 겸손은 존중받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효과적인 치료와 개선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은 평생에 걸쳐 자기 성찰, 탐구, 학습하고자 하는 헌신이 요구 되어진다 (Foronda et al., 2016).

음악치료 교육, 훈련에 대한 시사점

음악치료 교육자와 임상 감독자들은 국제 학생들이 음악치료 교과과정과 타지 환경에 적응하며 미래의 임상 실습에 필요한 기술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자들은 국제 학생들이 교육 경로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돕고, 이중 문화 역량(bicultural competence)을 발전시키며, 다양한 배경과 다국어 능력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고유함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지원적이며 문화적으로 환영받는 수용적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학업 성공을 이루기 위한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Christidis, 2021; Fry & Mumford, 2011; Sangganjanavanish et al., 2011). 음악치료 교육자들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음악치료 교육자들은 국제 학생들이 음악치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음악치료 교수들은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해결책이나 자원 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해결책과 자원은 학생들에게 글쓰기 센터 이용을 장려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고, 음악치료 수업이나 프로그램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체계적 변화와 같이 복잡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제 학생들이 수업 중 소외감을 느끼거나 정체성의 충돌로 외로움을 느끼고 음악치료 프로그램 내에서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다 (Yang et al., 2021). 음악치료 교수들은 수업 중에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문화 간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학생들이 단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 학생들은 동기들과 음악치료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활기찬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국제 학생들이 현지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함께 공부하는 동기들에게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면서, 그들이 가진 각기 다른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모두가 문화적 이해와 감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교수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국제 학생들이 그들의 모국 문화에 대한 전문가로 보지 말아야 한다. 국제 학생들은 전체 국가나 민족 집단을 대표하지 않으며 특정 문화적 관행에 대해 개인적인 해석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 학생들은 한국 문화나 아시아 문화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모든 부분에 대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음악치료 교수진, 인턴십 관계자와 임상 감독자들은 학생들이 한국의 가치, 전통, 관습에 대해 각자 고유한 해석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국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음악치료 교수들과 인턴십 관계자들은 음악치료 프로그램 내에서 국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차별과 미세공격(microaggressions; 무의식적이거나 의도치 않게 소수 집단에 대해 편견적이거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 Merriam Webster Dictionary, n.d. -b)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음악치료 교육자들은 국제 학생과 미국 학생들 모두에게 문화적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관련 워크숍을 설계하고 개최하여 학생들 간의 의미 있는 대화와 상호작용을 장려할 수 있다 (Christidis, 2021; John McKittrick et al., 2021; Sangganjanavanish et al., 2011). 또한 그들은

학생들에게 수업과 임상 실습 때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포용적 행동의 예시들을 보여주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배경에 관계없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포용적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문화적 거리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국제 학생들은 적절한 음악 레퍼토리 개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음악치료 교수진은 학생들이 임상 실습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노래 목록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여러 대학에서 일부 레퍼토리 목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배울 전문 분야나 미국 내 지역에 따른 내담자의 특정 선호도에 따라서 이 노래 목록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들은 또한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에게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에 사용되는 레퍼토리를 포함한 논문들을 제공할 수 있다. Schwartzberg 와 Silverman (2014)는 출생부터 19 세까지 소아와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노래 목록을 제공하며, 인사/시작, 악기, 행동/사회심리, 의사소통, 인지, 감각 통합/탐구, 신체 조절 및 안정, 인사/마무리, 전환할 때 부르는 노래 (transition songs)의 카테고리별로 노래 목록을 제공한다. Silverman (2009)은 정신과에서 일하는 음악치료사가 성인 환자들에게 노래가사분석(lyric analysis) 중재를 제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노래들을 공유했다. 여러 음악치료 연구자와 교육자들은 노인들은 위한 음악치료 시 사용할 수 있는 레퍼토리 리스트를 공유했다 (Belgrave et al., 2011; Cevasco-Trotter et al., 2014; VanWeelden & Cevasco, 2007, 2009, 2010; VanWeelden et al., 2008). 또한 음악치료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노래와 장르의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게 하여 음악의 사회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은 국제 학생들이 미국으로 출국 전이나 음악치료 프로그램 과정 중에 레퍼토리를 개발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음악치료 교육자들은 국제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일관된 지원자가 되어줄 수 있고 학생들이 미국 내에 복잡한 시스템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 학생들은 미국에서 경력을 쌓기 위한 기회를 찾을 때 미국 이민법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음악치료 교육자들과 나눌 수 있다. 음악치료 교수진과 지도 교수들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에 미리 학생들과 계획을 세우고, 졸업 후 학생들의 목표, 직업 선택 옵션, 비자 옵션/신청 과정 등에 대해 대화를 시작할 것을 추천한다. 교수진은 국제 학생들이 학위 과정에 있는 동안 계속 이러한 대화들을 이어갈 수 있고 학생들의 학업 진전에 따라서 조정해 갈 수 있다. 요약하면 음악치료 교수진, 학과장, 인턴십 지도 교수 및 감독들은 모두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미국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적 성공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문화적 적응, 학업 지원, 이민 및 비자 문제, 언어 지원, 네트워킹 기회, 전문적 성장, 정신 건강 지원 등 캠퍼스 내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을 위한 제안

저자들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제공한다. 첫째, 가능하다면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전에 기본적인 기타, 피아노, 노래에 관련된 기술을 배우도록 한다. 기본적 기술을 미리 익혀두면 학생들이 이후 임상 때 필요한 언어 능력 개발과, 영어로 된 가사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암기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장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레퍼토리 목록을 미리 연구하고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 언어 장벽은 임상 실습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학생들이 기본적인 노래 목록을 미리 준비해 두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치료적 관계와 더 높은 수준의 임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레퍼토리 학습과 다른 학업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음악치료 학업 기간 동안 다른 과목의 학업과 책임을 병행하면서 매일 음악 연습과 레퍼토리 개발을 위한 연습 시간을 일정에 포함시켜라. 넷째, 레퍼토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라.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의 첫 번째 저자는 실제 영어 노래의 원곡을 세 번 듣고 그 노래를 작은 부분으로 나눠서 부분별로 연습했다. 그리고 구절이나 후렴과 같은 더 큰 부분을 연습하고, 어려운 부분을 반복 연습을 통해 훈련을 했다. 다섯째, 노래를 듣는 시간을 만들기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나 여가 시간 중에 영어 원곡을 들으면서 새로운 레퍼토리를 배우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여섯째, 학생들은 자신들이 발표한 노래의 질에 대한 피드백을 모으길 권장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발표한 공연을 직접 녹음해 다시 볼 수도 있고, 신뢰할 만한 동료나 교수님, 임상 감독자들로부터 그 노래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고, 자신들의 강점과 개선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묻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일곱째,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음악 치료사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또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자신이 이루는 작은 성취라도 인정하는 연습을 하기를 추천한다. 여덟째, 자기를 관리하고 스트레스나 불쾌한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인지적, 행동적 대처 능력을 개발하라. 스트레스를 겪는 것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겪는 일반적인 경험이지만 이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자신에게 맞는 대처 전략 (coping strategies)을 개발하고 자기를 관리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완화할 수 있다 (Moore & Wilhelm, 2019). 아홉째, 필요할 때 자신의 욕구, 필요, 권리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자신을 옹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학생들이 학업 중에 학문적 문제, 개인적 또는 직업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거나 문제를 공유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내의 지원 서비스, 자원,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고, 전문 단체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열 번째, 학생들은 자신을 지원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필요 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나 커뮤니티는 국제 학생들이나 지역의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 뿐 아니라 교수진, 직원 또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포함한다.

연구의 한계, 제한점, 가정

본 논문의 저자들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과 관련된 배경, 경험, 책임, 편견, 가정 등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위치에 있다. 저자들의 관점과 해석은 다른 학생들, 교육자, 임상가, 감독자, 관리자들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세 저자들은 균형 잡힌 해석과 관점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였다. 저자들은 미국에서 접근 가능한 영어로 된 피어 리뷰(peer reviewed) 논문만 포함했기 때문에, 다른 언어나 다른 나라에서 출판된 중요한 자료를 놓쳤을 수도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인용된 연구 논문들의 품질을 평가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자 모두가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편집과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 제안

미국 내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는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 졸업생들, 임상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경험, 전략, 조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나라별, 문화, 언어에 따라 경험하는 차이를 조사하는 추가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자들은 이 중요한 학술적인 대화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해 나가기를 바란다.

결론

미국에서 음악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학생들이 겪는 전반적인 과정과 일반적인 어려움을 이해함으로써,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와 걱정 요소들을 미리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언어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캠퍼스 내 지원 자원을 활용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적 겸손을 기르며, 음악적 기술과 레퍼토리를 확장하는 전략을 개발하기를 권장한다.

저자 소개

Xinsu Chen, MA, MT-BC 는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음악치료 프로그램에서 음악치료 석사 학위(Master's/equivalency)를 취득했다. 아이오와 주 웨스트 뮤직 컴퍼니(West Music Company)에서 인턴십을 마치고 2023 년 음악 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미국 내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석사 논문을 작성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3 년 미국 음악치료 협회 중서부 학술대회에서 연구의 초기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녀는 뉴욕주 로체스터에 Roberts Wesleyan University 에서 클래식 기타 연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국의 난징 출신으로 유창한 중국어(만다린)와 영어를 구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공동 저자로서 중국어 번역을 완료했다.

김혜선(Hae Sun Kim), PhD, MT-BC 은 현재 아이오와 대학교 음악 치료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음악치료로 학사 학위를,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음악치료 석사 학위를,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음악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음악가를 위한 청력 보존, 청각 장애인이 음악을 인식하고 즐기는 방법, 청각 손실이 있는 개인을 위한 전문인 및 학생의 온라인 시뮬레이션 통합 교육에 중점된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아이오와 대학교 병원의 인공와우 임상 연구 센터 내 음악 인식 연구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음악치료 협회 사법 심의 위원회에서 중서부 지역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서울 출신으로 유창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며 본 연구의 공동 저자로 한국어 번역을 완료했다.

Abbey Dvorak, PhD, MT-BC 은 현재 아이오와 대학교 음악 치료 부교수이자 프로그램 디렉터이다. 연구 관심사는 음악 치료와 정신 건강, 마음 챙김 실천에서의 음악 사용, 음악 치료 교육 및 훈련에서의 연구 기술 개발을 포함한다. 정신 건강 및 종양학 분야에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2018 년 미국 음악치료 협회(AMTA) 중서부 지역 연구상을 수상하였고, 2024 년 아이오와 대학교 중견우수학자상(Mid-Career Faculty Scholar Award)을 수상하였다. 저널 오브 뮤직 테라피와 뮤직 테라피 퍼스펙티브스의 편집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30 편 이상의 주요 음악치료 저널에 게재된 저서를 가진 이 분야의 선도적인 학자이다.

사사의 글

본 연구의 한국어 번역 내용을 검토해 주신 음악 치료사 Sun Joo Lee, ABD, MM, MT-BC, NMT FELLOW 와 중국어 번역 내용을 검토해주신 음악 치료사 Bing Li, MME, MT-BC, NMT 에게 감사를 드린다.

참고문헌

- Abu Rabia, H. M. (2017). Undergraduate Arab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to U.S.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1), 131–139.
<http://dx.doi.org/10.5430/ijhe.v6n1p131>
- Ahad, A. A., Sanchez-Gonzalez, M., & Junquera, P. (2023).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mental health stigma across cultures for improving psychiatric care: A narrative review. *Curēus*, 15(5), 1–8. <https://doi.org/10.7759/cureus.39549>
-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2015). *Non-discrimination and equal opportunity policy*.
https://www.musictherapy.org/about/nondiscrimination_and_equal_opportunity_policy/
-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2021). *Professional requirements for music therapists: Educational requirements for music therapists*.

- <https://www.musictherapy.org/about/requirements/>
-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2024). *A career in music therapy*.
<https://www.musictherapy.org/careers/employment/>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Guide to cultural awareness for disaster response volunteers*. <https://www.apa.org/topics/disasters-response/cultural-awareness-guide.pdf>.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d.). Culture shock. In APA dictionary of psychology. Retrieved November 15, 2023, from <https://dictionary.apa.org/culture-shock>
- Amuedo-Dorantes, C., & Furtado, D. (2019). Settling for academia? H-1B visas and the career choi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54(2), 401–429. <https://doi.org/10.3368/jhr.54.2.0816.8167R1>
- Anderson, L. M., Scrimshaw, S. C., Fullilove, M. T., Fielding, J. E., Normand, J., & Task Force on Community Preventive Services (2003). Culturally competent healthcare systems. A systema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4(3 Suppl), 68–79. [https://doi.org/10.1016/s0749-3797\(02\)00657-8](https://doi.org/10.1016/s0749-3797(02)00657-8)
- Andrade, M. S., & Hartshorn, K. J. (2019). *International student transition: A framework for succes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Ang, S., Ng, K. Y., & Rockstuhl, T. (2019). Cultural intelligence. In R. J. Sternberg (Ed.), *The Cambridge handbook of intelligence* (pp. 802–8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9781108770422>
- Ang, S., Van Dyne, L., Koh, C., Ng, K. Y., Templer, K. J., Tay, C., & Chandrasekar, N. A. (2007). Cultural intelligence: Its measurement and effects on cultural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cultural adaptation and task performan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3(3), 335–371. <https://doi.org/10.1111/j.1740-8784.2007.00082.x>
- Belgrave, M., Darrow, A. A., Walworth, D., & Wlodarczyk, N. (2011). *Music therapy and geriatric populations: A handbook for practicing music therapist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 Buchanan, I. (2018). *Neo-racism. A dictionary of critical theor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Campinha-Bacote, J. (2002).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tence in the delivery of healthcare services: A model of care.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3(3), 181–201. <https://doi.org/10.1177/10459602013003003>
- Castonguay, C. (2021). What is work-study in the USA and who can qualify for it? <https://www.bachelorstudies.com/articles/what-is-work-study-in-the-usa-and-who-can-qualify-for-it>
- Certification Board for Music Therapists. (2020a). *Board certification domains: 2020 the Certification Board for Music Therapists*. https://www.cbmt.org/wp-content/uploads/2020/03/CBMT_Board_Certification_Domains_2020.pdf
- Certification Board for Music Therapists. (2020b). *Candidate handbook: Program for board certification in music therapy*. <http://www.cbmt.org/wp-content/uploads/2020/07/CBMT-Handbook.pdf>
- Certification Board for Music Therapists. (2021). *Scope of music therapy practice*. https://www.cbmt.org/wp-content/uploads/2021/09/AMTA-CBMT_Scope-of-Music-Therapy-Practice-091721.pdf
- Cevasco-Trotter, A. M., VanWeelden, K., & Bula, J. A. (2014). Music therapists' perception of top ten popular songs by decade (1900s-1960s) for three subpopulations

- of older adults. *Music Therapy Perspectives*, 32(2), 165–176.
<https://doi.org/10.1093/mtp/miu028>
- Chang, E., Simon, M., & Dong, X. (2012). Integrating cultural humility into health care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dvances in Health Sciences Education*, 17(2), 269–278. <https://doi.org/10.1007/s10459-010-9264-1>
- Chang, L.L. (2000). *Speech sounds that present difficulty for Chinese speakers learning to sing in English, Italian, German, and French: Exercises to facilitate pronunciation*. (Publication No. 30530907)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ami].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 Cheng, M & Liu, D. (2021). Employment and academic and social integration: The experiences of overseas Chinese students and scholars. *Chinese Education and Society*, 54(3-4), 91–94. <https://doi.org/10.1080/10611932.2021.1958295>
- Cherry, K. (2023, April 4). Introspection and how it is used in psychology research. *Verywell Mind*. <https://www.verywellmind.com/what-is-introspection-2795252>
- Christidis, A. (2021). Preparing overseas Chinese students to become successful global citizens. *Chinese Education and Society*, 54(3–4), 141–160.
<https://doi.org/10.1080/10611932.2021.1958190>
- Demes, K. A., & Geeraert, N. (2015). The highs and lows of a cultural transition: A longitudinal analysis of sojourner stress and adaptation across 50 count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2), 316–337.
<http://dx.doi.org/10.1037/pspp0000046>
- Durrani, A. (2020, December 15). International students: How to show financial ability. *U.S. News & World Report*. <https://www.usnews.com/education/best-colleges/articles/how-prospective-international-students-can-demonstrate-financial-ability>
- Earley, P. C., & Ang, S. (2003). *Cultural intelligence: Individual interactions across cultures*. Stanford University Press.
- Edwards, J. (2022). Cultural humility in music therapy practice. In L. E. Beer & J. C. Birnbaum (Eds.), *Trauma-informed music therapy* (pp. 28–36).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003200833-5>
- Edwards, J., & Daveson, B. (2004). Music therapy student supervision: Considering aspects of resistance and parallel processes in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with students in final clinical placement. *The Arts in Psychotherapy*, 31(2), 67–76.
<https://doi.org/10.1016/j.aip.2004.01.004>
- EducationUSA. (n.d.) The experience of studying in the US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https://educationusa.state.gov/>
- Fakunle, O. (2021). International students' perspective on developing employability during study abroad. *Higher Education Quarterly*, 75(4), 575–590.
<https://doi.org/10.1111/hequ.12308>
- Federal Student Aid. (n.d.). *Eligibility for non-U.S. citizens*. *The Office of Federal Student Aid*. <https://studentaid.gov/understand-aid/eligibility/requirements/non-us-citizens>
- Forinash, M. (Ed.) (2001). *Music therapy supervision* (1st ed.). Barcelona Publishers.
- Foronda, C., Baptiste, D. L., Reinholdt, M. M., & Ousman, K. (2016). Cultural humility: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7(3), 210–217.
<https://doi.org/10.1177/1043659615592677>
- Fry, M., & Mumford, R. (2011). An innovative approach to helping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 to improve their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skills: Whose role is

- it? *Education for Primary Care*, 22(3), 182–185.
- Gomes, C. (2020). Outside the classroom: The language of English and its impact on international student mental wellbeing in Australia.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10(4), 934–953. <https://doi.org/10.32674/jis.v10i4.1277>
- Hadley, S. & Norris, M. S. (2016). Musical multicultural competency in music therapy: The first step. *Music Therapy Perspectives*, 34(2), 129–137. <https://doi.org/10.1093/mtp/miv045>
- Han, Y., Gulanowski, D., & Sears, G. J. (2022). International student graduates' workforce integration: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86, 163–189. <https://doi.org/10.1016/j.ijintrel.2021.11.003>
- Herman, R. (2022, August 5). *5 tips for navigating the H-1B visa process*. Vault. <https://firsthand.co/blogs/international-students/5-tips-for-navigating-the-h1-b-visa-process>
- Hong, K. T., Ng, S. I. & Lai, P. S. (2021). International students' cross-cultural adjustment: Determining predictors of cultural intelligence. *Indonesian Journal of Social Research*, 3(1), 27–47. <https://doi.org/10.30997/ijsr.v2i3.82>
- Hsiao, F., Tan, X., Tang, J. J., & Chen, J. (2020). Factors associated with music therapy board certification examination outcomes. *Music Therapy Perspectives*, 38(1), 5–60. <https://doi.org/10.1093/mtp/miz017>
-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2022). International student enrollment trends: 1948/49–2021/22. *Open Doors Report on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http://www.opendoorsdata.org/>
-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2024). *Beyond OPT to H-1B visa*. University of Washington. <https://iss.washington.edu/work/fl-employment/opt-to-h1b/>
- Israel, E. & Batalova, J. (2021, January 14).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international-students-united-states-2020-transition-labor-market>
- Jennings, L., & Skovholt, T. M. (1999). The cognitive, emoti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master therap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1), 3–11. <https://doi.org/10.1037/0022-0167.46.1.3>
- John McKitterick, D., Peters, M. D.J., Corsini, N., Chiarella, M., & Eckert, M. (2020). International nursing students' and new graduates' experiences of transition to the nursing workforce: A scoping review protocol. *JBI Evidence Synthesis*, 19(4), 874–882. <https://doi.org/10.11124/JBIES-20-00098>
- John McKitterick, D., Peters, M. D.J., Corsini, N., Chiarella, M., & Eckert, M. (2021). International nursing students' and international nursing graduates' experiences of transition to the nursing workforce: A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eviden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55, 103147. <https://doi.org/10.1016/j.nepr.2021.103147>
- Jones, S. M., Bodie, G. D., & Hughes, S. D. (2019). The impact of mindfulness on empathy, active listening, and perceived provisions of emotional support. *Communication Research*, 46(6), 838–865. <https://doi.org/10.1177/0093650215626983>
- Kerr, E., & Wood, S. (2023). See the average college tuition. U.S. News and World Report. Retrieved September 20, 2023, from <https://www.usnews.com/education/best-colleges/paying-for-college/articles/paying-for-college-infographic>
- Khanal, J., & Gaulee, U. (2019). Challenges of international students from predeparture to post-study: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9(2), 560–581.

- <https://doi.org/10.32674/jis.v9i2.673>
- Kim, S. (2008). The supervisee's experience in cross-cultural music therapy supervision. *Qualitative Inquiries in Music Therapy*, 4, 1–44.
https://digitalcommons.molloy.edu/mustherapy_fac/6
- Kim, S. (2011).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international music therapy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Music Therapy Perspectives*, 29(2), 126–32.
<https://doi.org/10.1093/mtp/29.2.126>
- Knight, A. J., LaGasse, B., & Clair, A. (Eds.). (2018). *Music therapy: An introduction to the profession*.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 Kuo, Y. H. (2011). Language challenges faced by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1(2), 38–42.
<https://doi.org/10.32674/jis.v1i2.551>
- Kurpis, L. H., & Hunter, J. (2017). Developing students' cultural intelligence through an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y: A cross-cultural consumer behavior interview.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39(1), 30–46. <https://doi.org/10.1177/0273475316653337>
- Lan, H. W. (2020). Academic and cultural adjustment among Asian students in graduate music therapy programs. *Music Therapy Perspectives*, 38(1), 89–98.
<https://doi.org/10.1093/mtp/miz020>
- Lee, J. J. (2007). Neo-racism toward international students: A critical need for change. *About Campus*, 11(6), 28–30. <https://doi.org/10.1002/abc.194>
- Lee, J., Jon, J. E., & Byun, K. (2017). Neo-racism and neo-nationalism within east Asia: Th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21(2), 136–155. <https://doi.org/10.1177/1028315316669903>
- Lee, N. (2020). *Navigating the experience of burnout of immigrant music therapists in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lloy University]. Theses & Dissertations, 84.
- Levine, H., Stock, S. R., & Prieto-Welch, S. L. (2016). International student mental health.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2016(156), 53–63.
<https://doi.org/10.1002/ss.20191>
- Martirosyan, N. M., Hwang, E., & Wanjohi, R. (2015). Impact of English proficiency on academic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5(1), 60–71. <https://files.eric.ed.gov/fulltext/EJ1052835.pdf>
- Meadows, A., & Eyre, L. (2020). Program directors' perceptions of the CBMT exam. *Voices: A World Forum for Music Therapy* 20(2), 21–21.
<https://doi.org/10.15845/voices.v20i3.2930>
- Merriam Webster Dictionary. (n.d. -a). Networking. Retrieved June 15, 2024, from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networking>
- Merriam Webster Dictionary. (n.d. -b). Microaggression. Retrieved July 4, 2024, from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microaggression>
- Moore, C., & Wilhelm, L. A. (2019). A survey of music therapy students' perceived stress and self-care practices. *The Journal of Music Therapy*, 56(2), 174–201.
<https://doi.org/10.1093/jmt/thz003>
- Nunes, S. & Arthur, N. (2013).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s of integrating into the workforce.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50(1), 34–45.
<https://doi.org/10.1002/j.2161-1920.2013.00023.x>
- Oberg, K. (1960). Culture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ist*, 7(1), 177–182. <https://doi.org/10.1177/009182966000700405>
- Pang, B., Perrone, L., & Wong, J. (2021). Health and employment experiences of Chinese

- international students in Australia. *Chinese Education and Society*, 54(3–4), 107–119. <https://doi.org/10.1080/10611932.2021.1958293>
- Parker, A. (2023).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S.: Seven stats for 2023*. ProsperityforAll. <https://www.prosperityforamerica.org/international-students-in-the-us>
- Pedersen, P. (1994). *The five stages of culture shock: Critical incidents around the world: Critical incidents around the world*. Greenwood Publishing Group.
- Pieterse, A. L., Lee, M., Ritmeester, A. & Collins, N. M. (2013). Towards a model of self-awareness development for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training.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26(2), 190–207. <https://doi.org/10.1080/09515070.2013.793451>
- Rajasekar, J., & Renand, F. (2013). Culture shock in a global world: Factors affecting culture shock experienced by expatriates in Oman and Omani Expatriates abroad.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8(13), 144–160. <http://dx.doi.org/10.5539/ijbm.v8n13p144>
- Sangganjanavanich, V. F., Lenz, A. S., & Cavazos Jr, J. (2011). International students' employment search in the United States: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8(1), 17–26. <https://doi.org/10.1002/j.2161-1920.2011.tb00107.x>
- Schwartzberg, E. T., & Silverman, M. J. (2014). Music therapy song repertoire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 descriptive analysis by treatment areas, song types, and presentation styles. *The Arts in Psychotherapy*, 41(3), 240–249. <https://doi.org/10.1016/j.aip.2014.03.007>
- Segal, J., Smith, M., Robinson, L., & Boose, G. (2022). *Body language and nonverbal communication*. HelpGuide. <https://www.helpguide.org/articles/relationships-communication/nonverbal-communication.htm>
- Shu, F., McAbee, S. T., & Ayman, R. (2017). The HEXACO personality traits, cultur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student 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6, 21–25. <http://dx.doi.org/10.1016/j.paid.2016.10.024>
- Silverman, M. J. (2009). The use of lyric analysis interventions in contemporary psychiatric music therapy: Descriptive results of songs and objectives for clinical practice. *Music Therapy Perspectives*, 27(1), 55–61. <https://doi.org/10.1093/mtp/27.1.55>
- Stanford University Bechtel International Center. (n.d.). *Maintaining status for F-1 and J-1 students*. Stanford University. <https://bechtel.stanford.edu/navigate-international-life/visas/f-1-and-j-1-student-visas/maintaining-status-f-1-and-j-1-students>
- Sue, D. W., & Sue, D. (2016).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7th edi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 Takayama, P. B. (2013). Effects of the concept of cultural distance on the international trade of 'telenovelas.' *Latin America Ronshu*, 47, 61–78. <https://doi.org/10.50978/laronshu.47.0.61>
- Tervalon, M., & Murray-Garcia, J. (1998). Cultural humility versus cultural competence: A critical distinction in defining physician training outcomes in multicultural education. *Journal of Health Care for the Poor and Underserved*, 9(2), 117–125. <https://doi.org/10.1353/hpu.2010.0233>
- USA Gov. (2024). Study in the U.S. <https://www.usa.gov/study-in-US>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6). *Improving cultural competence: KAP keys for clinicians*.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0). *Student and employment*.

-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students-and-employment>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1). *H-1B Electronic registration process*.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h-1b-specialty-occupations-and-fashion-models/h-1b-electronic-registration-proces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2).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for F-1 students*.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optional-practical-training-opt-for-f-1-student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3a). *H-1B cap season: The H-1B program*.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h-1b-specialty-occupations-and-fashion-models/h-1b-cap-season>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3b). *Policy manual – Part H – Specialty occupation workers (H1-B, E-3)*.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2-part-h>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3). *I-94 website: Travel records for U.S. visitors*. <https://i94.cbp.dhs.gov/I94/-/home>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4). *Requirements for immigrant and nonimmigrant visas*. <https://www.cbp.gov/travel/international-visitors/visa-waiver-program/requirements-immigrant-and-nonimmigrant-visas#:~:text=Nonimmigrant%20visas%20are%20for%20foreign,study%2C%20or%20other%20similar%20reasons>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2). *F-1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https://studyinthestates.dhs.gov/sevis-help-hub/student-records/fm-student-employment/f-1-curricular-practical-training-cpt>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3). *Students and the form I-20*. <https://studyinthestates.dhs.gov/students/prepare/students-and-the-form-i-20>
- U.S. Department of State. (2023). *Student visa*.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student-visa.html>
- U.S. Government Services and Information. (2022). Learn English and attend college in the U.S. Retrieved November 18, 2022, from <https://www.usa.gov/study-in-US>
- VanWeelden, K., & Cevasco, A. M. (2007). Repertoire recommendations by music therapists for geriatric clients during singing activities. *Music Therapy Perspectives*, 25(1), 4–12. <https://doi.org/10.1093/mtp/25.1.4>
- VanWeelden, K., & Cevasco, A. M. (2009). Geriatric clients' preferences for specific popular songs to use during singing activities. *The Journal of Music Therapy*, 46(2), 147–159. <https://doi.org/10.1093/jmt/46.2.147>
- VanWeelden, K., & Cevasco, A. M. (2010). Recognition of geriatric popular song repertoire: A comparison of geriatric clients and music therapy students. *The Journal of Music Therapy*, 47(1), 84–99. <https://doi.org/10.1093/jmt/47.1.84>
- VanWeelden, K., Juchniewicz, J., & Cevasco, A. M. (2008). Music therapy students' recognition of popular song repertoire for geriatric clients. *The Journal of Music Therapy*, 45(4), 443–456. <https://doi.org/10.1093/jmt/45.4.443>
- Vega, V. P. (2010). Personality, burnout, and longevity among professional music therapists. *Journal of Music Therapy*, 47(2), 155–179. <https://doi.org/10.1093/jmt/47.2.155>
- VisaNation. (2024). *H-1B visa benefits*. <https://www.immi-usa.com/h1b-visa/h1b-visa-benefits/>
- Wang, K. T., Heppner, P. P., Wang, L., & Zhu, F. (2015). Cultural intelligence trajectories in new international student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ross-cultural

- competence. *Internation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Research, Practice, Consultation*, 4(1), 51–65. <https://doi.org/10.1037/ipp0000027>
- Wei, M., Heppner, P. P., Mallen, M. J., Ku, T. Y., Liao, K. Y. H., & Wu, T. F. (2007). Acculturative stress, perfectionism, years in the United States,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385–394. <https://doi.org/10.1037/0022-0167.54.4.385>
- Wilczewski, M., & Alon, I. (2023).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 international student adaptation: A bibliometric and content analysis. *Higher Education*, 85, 1235–1256. <https://doi.org/10.1007/s10734-022-00888-8>
- Wright-Mair, R., Peters, C., & McAllaster, G. A. (2021). COVID-19 strikes U.S. higher education. *Journal of Postsecondary Student Success*, 1(1), 58–80. https://doi.org/10.33009/fsop_jpss125542
- Yeager, K. A., & Bauer-Wu, S. (2013). Cultural humility: Essential foundation for clinical researchers. *Applied Nursing Research*, 26(4), 251–256. <https://doi.org/10.1016/j.apnr.2013.06.008>
- Yang, C., Chen, C., Chan, M., Wang, C., Luo, H., & Lin, X. (2021). Training experience in the US school psychology program: Understanding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assets, challenges, and coping. *Contemporary School Psychology*, 25(3), 299–310. <https://doi.org/10.1007/s40688-020-00320-x>

부록

출국 전부터 음악치료 전문 실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개요

출국 전 과정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치료 공부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고 음악치료 분야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정보 수집 원하는 조건과 학업 목적에 적합한 학교 조사(예: 정부 웹사이트, 음악치료 협회 웹사이트, 관심있는 학교 웹사이트 방문) 후 지원 학교 결정 지원하는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원서비, 기타 서류 등 작성 및 제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학교에 지원 및 합격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학교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에서 합격 여부 통보 받기 유학생 담당자(DSO)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에 정보 입력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1년치 학비, 생활비 등을 충당할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는 재정증명 서류 준비 유학생 담당자에게 재정증명 서류 제출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생 담당자에게 입학 허가서(I-20) 발급받기 FMJfee.com 에 들어가서 I-901 SEVIS 수수료 납부하고 영수증 저장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학생비자 신청 비자 인터뷰를 예약 후 필요한 서류들 지참하여 인터뷰 완료 미국 학생비자 발급 후 여권과 비자 수령 I-20 에 기재되어 있는 학위 프로그램 시작 날짜 기준으로 30 일 이내에 미국으로 입국
교과 중간 과정	
이민 및 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입국 시 처음 들어가는 공항 (port of entry)에서 입국 신고 및 신고 절차 완료 해당 웹사이트(www.cbp.gov/I94)에서 입출국 기록(I-94) 전자열람 또는 출력 입국 후 유학생 관계자(DSO)에게 입국 사실 보고
대학 및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학교에 도착하면 국제 학생처(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체크인 완료 대학 측이 주최하는 입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대학 측에서 추가로 영어능력 입증을 요구할 경우 추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을 완료 대학 측에서 추가로 음악능력 입증을 요구할 경우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 대학 및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교육 요구사항을 충족
이민 규정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상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유지 학기 중에 전임 학생 신분(full-time) 유지 및 학위과정 중 필수 요구 사항 충족 교내 또는 교외 취업 관련 모든 규정과 제한 준수 학업 진행 상태를 살펴 적절한 수준의 학업성과를 유지하고 관리 언제나 유효한 I-20 또는 DS-2019 를 소지 개인, 프로그램, 재정 관련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 학생처에 즉시 보고
필수 교과 과정 이후 절차	
교육과정 실습(C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T 신청 조건, 지원 자격 및 보고 요건에 대한 이해 학부생 또는 동등한 학력의 경우, 인턴십 시작하기 전 최소 한 학사 년도 동안 전임 학생 신분(full-time)을 유지하며 CPT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 음악치료 인턴십/취업 지원 및 면접 음악치료 인턴십/취업 제안을 받고 수락 인턴십, 입사 제안서(offer letter)를 유학생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CPT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십 책임자들 및 지도 교수와 협력하여 인턴십, 직장에 필요한 서류들 작성 • 음악치료 인턴십/직장을 시작하기 전 CPT 가 포함된 새로운 I-20 발급 받기 • 학부생 또는 동등한 학력의 학생들일 경우 인턴십 과목 수강신청 • 유학생 담당자가 CPT 를 승인 하여 I-20 에 기재된 CPT 시작일에 인턴십 근무 시작
음악 치료사 자격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치료 인턴십과 음악치료 학위 관련 모든 요구 사항 충족 • CBMT 에서 음악 치료사 자격 시험 신청 (https://www.cbmt.org) • 온라인 시험 형식, 영역, 문제 구조에 익숙해 지기 위해 CBMT 가 제공하는 기출문항 및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 준비 • 자격 시험 통과 후 국가 공인 음악치료사 자격증(MT-BC) 취득 또는 떨어졌을 경우 30 일 이내에 새 시험 재응시 • 자격증 유지를 위해 최소 5 년 주기 이내 최소 100 시간의 Continuing Music Therapy Education(CMTE)학점 취득을 통해 CBMT 에 이를 제출
선택적 실습 교육(O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T 신청 조건, 지원 자격 및 보고 요건에 대한 이해 • OPT 지원 계획, 신청 절차에 관해 유학생 담당자와 상담, 필수서류 준비 및 작성 • 유학생 담당자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에 OPT 를 위한 추천서 입력 • I-20 에 기재된 프로그램 완료일로부터 최대 90 일 전까지 OPT 신청 • OPT 신청을 위해 온라인 I-765 양식 및 지원 서류들을 작성해 제출 • USCIS 에서 고용 허가증(EAD) 받기 • 법적 이름, 주소나 연락처, 취업상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 정확하고 최신의 고용 이력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 • OPT 완료 후 다른 학위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60 일의 출국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H-1B 취업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직업(예: 음악치료사 직책)의 기준을 충족하는 직책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기 • H-1B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고용주로부터 전문직 채용 제안을 받고 수락 • 미국 내 고용주가 신청자를 위한 노동 조건 신청서(LCA)를 노동부에 제출 후 인증 받기 •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용주는 Form I-129 비자 신청서, 지원 문서 및 수수료를 포함한 H-1B 비자 신청 서류들을 준비 • 고용주가 USCIS 에 H-1B 비자 신청을 제출하고 승인 통지 받기 • H-1B 비자에 관련된 다양한 규정 준수 조건을 이해하고 충족 • H-1B 비자 완료 후,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이민 상태를 신청하거나 일반적으로 고용 기반 또는 가족 지원 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

안내: 다음 표는 본 논문이 출판된 시점에 확인된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겪는 일반적인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위 정보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민 변호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국제 학생들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를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미 정부 부서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